

# 류준열 “외계+인” 전 인연인 것 같아

영화 ‘외계+인 2부’로 돌아온 배우 류준열  
2022년 1부 공개 후 약 1년 6개월만 공개  
“너무 좋은 배우들과 좋은 인연 최선 다해”  
“김태리·김우빈과 인연·대화 특별한 기억”  
“주연 배우 책임감 점점 더 커져 고민 돼”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거자필반(去者必返) 떠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 온다. 영화 ‘외계+인 2부’(1월10일 공개)엔 이 두 말이 대사로 나온다. 1부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듯한 인물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다 2부 마지막 대목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 그대로 만나고 헤어진다. 떠났다가 돌아온다. 아마 ‘외계+인’ 시리즈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그리 멀리 돌아온 듯하다.

얼지기 도사 무렵도 그렇다. 이안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우왕이 좌왕이는 떠남과 돌아옴을 반복한다. 흑실·청운과 인연도, 능과·개인과 운명도 다르지 않다. 무릎을 연기한 배우 류준열(38)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아름다운 말”이라며 “이 말에 관해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계+인’이 맺어준 인연에 관해 얘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공개된 ‘외계+인 1부’가 나오기까지 약 5년, 그로부터 ‘외계+인 2부’가 나오기까지 약 1

년 6개월이 걸렸다.  
“각 인물이 정의를 위해서 한 뜻으로 모이는 얘기가 아니죠. 서로 얽힌 인연을 풀어 가다 보니 세상이 구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랬어요. 동료 배우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태리나 우빈, 열정 아·조우진·진선규 선배 모두 다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영화를 찍은 겁니다. 연을 맺었고, 저희가 가진 성의를 다했어요. 그러면 이 영화도 극중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022년 1부가 나왔을 때 류준열은 최동훈 감독 영화에 출연하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이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국내 최고 흥행 감독으로 불리던 최 감독 신작은 154만명이 보는 데 그치며 흥행 참패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류준열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소중한 것을 많이 얻었기에 좋은 인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래 배우인 김태리와 김우빈과 나는 대화에 관해 얘기했다. 류준열은 김태리와 ‘리틀 포레스트’에서 호흡을 한 차례 맞춘 적이 있고, 김우빈과 이번에 처음 함께 연기했다.

“이 영화 하면서 두 사람과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태리와 우빈이요. 작품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고 사적인 대화를 주로 했죠. 태리와는 대화 내용 대부분이 서로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거예요.(웃음) 그런데 거기서 오는 위트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 뭔가 하나씩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리와 대화를 즐겨요. 우빈이는 참 따뜻해요.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줬죠. 우빈이 길숙한 곳에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흔치 않아요.”

그래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인연에 관한 얘기만 할 수는 없다. 남남은 남남대로 쟁기되 프로페셔널로서 결과를 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최동훈 감독은 1부 흥행 실패를 “모두 내 잘못”이라고 했지만 류준열 역시 주연 배우로서 책임을 짊어졌다. 최근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두 역시 책임감이라고 했다.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주목 받고 나서 약 8년, 그는 이제 주연 배우로서 한 작품을 짊어지는 자리에 있게 됐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에 무게감을 느낀다”며 “이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균형이 중요하네.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적당히 가장 어렵잖아요.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서 있어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이 안 서요. 열정을 보이면서도 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상처 받는 사람이 최대한 적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 최대 고민거리가 책임이예요.”



## 뉴진스·아이브, 작년 멜론 연간차트 싹쓸이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대세 걸그룹 ‘아이브(IVE)’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Melon)의 ‘2023년 연간차트’를 장악했다.

9일 카카오펀터테이먼트에 따르면, 국내·해외 차트 성적을 집계한 ‘2023 멜론 연간차트’에서 뉴진스의 ‘디토’가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디토’를 앞세워 멜론의 시상식 ‘멜론 뮤직 어워드 2023’(MMA 2023)에서 5관왕을 안았다. 이와 함께 뉴진스는 ‘하이프 보이(Hype Boy)’ 2위, ‘OMG’ 4위, ‘어텐션(Attention)’ 8위 등 10위권에 총 네 곡을 올리며 열풍을 새삼 확인했다.

‘러브 다이브(LOVE DIVE)’로 2022년 멜론 연간차트 1위에 올랐던 아이브는 ‘아이 엠(I AM)’ 3위, ‘키치(Kitsch)’ 6위,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 3곡을 10위권 내 랭크시켰다. 그룹 ‘(여자)아이들’은 ‘퀸카(Queencard)’로 7위에 오르며 차지 않는 인기를 증명했다. 10위 안에 나머지 한 자리인 5위는 여주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가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또 다른 한자리인 9위는 노래방에서 자주 불린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는 9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에스파(aespa), 르세라핌(LE SSERAFIM), 블랙핑크(BLACKPINK), 엔믹스(NMIXX)까지 대형 기획사 소속 걸그룹들과 스테이씨(STAYC), 하이키(HI-KEY),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등 ‘중소 기획사의 기적’을 일궈낸 걸그룹들도 100위권에 진입하며 강세를 드러냈다.

걸그룹 뿐만 아니라 보이그룹과 발라드 가수, 숏폼에서 화제를 일으킨 음원들도 연간차트 100위권에 진입했다.

세븐틴(SEVENTEEN)은 유닛 부석순의 ‘파이팅 해이지(Feat. 이영지)’로 15위, ‘손오공’으로 29위에 올랐다. 지난 2014년 발매된 성시경의 발라드 ‘너의 모든 순간’은 1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멜론은 “국내 연간차트 최상위권의 대다수가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적”이라고 해석했다.

현실 남매의 찰진지로 화제를 모았던 ‘악뮤(AKMU)’의 ‘러브 리(Love Lee)’는 멜론 주간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연간차트에서도 31위에 올랐다. 엠넷 ‘스트릿우먼파이터’ 시즌2의 리더 계급 미션곡 ‘스모크(Smoke)(Prod. Dynamicduo, Padi)’도 숏폼 상에서 기하급수적인 파급력을 낳으며 72위를 기록했다.

작년 차트에선 대중적으로 주목 받은 해외 팝들도 많다. 지난해 팝 연간차트의 주인공은 내한공연도 했던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Charlie Puth)다. 푸스는 ‘아이 돈 트 싱크 댓 아이 라이크 히(I Don’t Think That I Like Her)’로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데인저러슬리(Dangerously)’ 2위를 비롯해 총 열 곡을 50위 안에 진입시켰다.

멜론 톱100에서 14장 장르 중 최고 순위인 17위에 오른 일본 싱어송라이터 이마세(imase)의 ‘나이트 댄서(NIGHT DANCER)’는 연간차트 6위에 올랐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부른 카타르 월드컵의 주제가 ‘드림머스(Dreamers)’는 7위에 랭크됐다. 또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OST인 미국 싱어송라이터 라우브(Lauv)의 ‘스틸 더 쇼(Steal The Show)’도 5위라는 호성적을 거뒀다.



## 블랙핑크 제니, 협업곡 빌보드 ‘핫100’ 69위

### K팝 여성솔로 최고 순위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 가수 제니가 솔로 자격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K팝 여성 솔로 가수 최고 성적을 거뒀다.

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제니가 캐나다 스타 싱어송라이터 위켄드·미국 배우 겸 가수 릴리 로즈 멜로디 뎀과 함께 부른 HBO 시리즈 ‘더 아이돌’ OST ‘원 오브 더 걸스(One Of The girls)’가 13일 자 ‘핫100’에서 69위를 차지했다.

2주 전 해당 차트에 100위로 데뷔했다가 캐럴 공세에 밀려 차트 밖으로 벗어났으나 이번 주에 재진입했다.

특히 블랙핑크 멤버로 해당 차트에 수차례 진입한 제니는 이번 성적으로 이 차트에서 K

팝 솔로 여성가수 최고 순위를 찍었다.

해당 차트에서 기존 K팝 여성 솔로 최고 성적은 블랙핑크 디안 멤버인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로 70위였다. 블랙핑크 또 다른 멤버인 리사의 ‘라리사(Lalisa)’와 ‘머니(Money)’는 각각 84위와 90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그룹 ‘2NE1’ 출신 씨엘의 ‘리프트드(LIFTED)’가 94위였다. 씨엘은 가수 사이의 ‘대디’ 피쳐링으로 97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제니는 ‘더 아이돌’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블랙핑크 활동은 자신을 발굴한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해나기지만 최근 개별 활동을 위한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ODD ATELIER·OA)’를 설립했다. 유재석, 차태현 등과 함께 tvN 실화 추리극 ‘아파트404’(2월 방송 예정) 출연하는 등 예능 활동도 나선다.

## 라이즈, 애플뮤직·샤잠 ‘2024 주목 아티스트’ 선정...K팝 유일

### 엠티 라스트 디너 파티 등과 어깨 나란히

대세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RIIZE)’가 미국의 글로벌 음악 플랫폼 애플뮤직(Apple Music)이 디스커버리 애플리케이션 샤잠(Shazam)과 발표한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에 K팝 가수로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라이즈는 8일(현지시간) 애플뮤직이 샤잠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2024 Artists to Watch)’에 블러디 시빌리언(Bloody Civilian), 플라야나 보스(Flyana Boss), 케냐 그레이스(Kenya Grace), 더 라스트 디너 파티(The Last Dinner Party)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영국 록밴드 더 라스트 디너 파티는 영국 BBC 라디오1이 주목할 만한 신예를 선정하는 ‘BBC 사운드 오브(BBC Sound Of) 2024’에서 1위로 뽑힌 유망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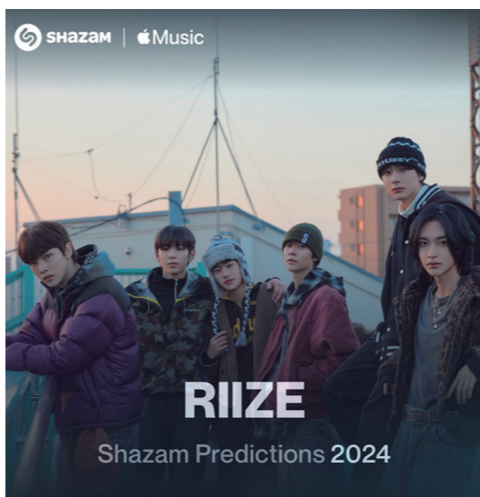
라이즈의 쇼타로는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브리즈들을 더 많은 곳에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엠톤은 멤버인 쇼타로, 윌빈, 은석, 성찬, 소희와 함께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것과 앞으로

로도 더 많은 브리즈 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오래 좋은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순간들을 남겨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꿈을 크게 꾸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라이즈의 신곡 ‘러브 원원나인(Love 119)’이 ‘샤잠: 2024년 트렌드 플레이리스트’ 50곡에도 포함됐다. 이 리스트엔 K팝 프로젝트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크러시(CRUSH)’도 들었다.

애플뮤직의 에디터들은 샤잠의 데이터, 알고리즘을 분석해 매년 글로벌 음악계를 이끌 아티스트 50팀을 선정할 ‘샤잠: 트렌드 플레이리스트’를 발표한다. 특히 성장 가능성과 미래 잠재력을 지닌 다섯 팀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로 꼽는다.

앞서 라이즈는 그레미닷컴에서 발표한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25’에 유일한 K팝 보이그룹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러브 119’는 미국 롤링스톤, 영국 NME·클래시(CLASH) 등 해외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라이즈는 ‘러브



119’ 발매를 기념해 12-18일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펙스(U-PLEX), 같은 달 24-30일 일본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에서 팝업스토어 ‘라이즈 업(RIIZE UP)’을 연다.

제로베이스원은 데뷔곡 ‘인 블룸(In Bloom)’을 영국 매거진 바니티 토티(Vanity Teen)이 선정한 ‘2023년 최고의 K팝 싱글 23곡’, 미국 빌보드(Billboard)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K팝 25곡’에 올랐다.